



환경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1. 23.(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22.(화)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고덕규 (032-560-7061)
		담당자	연구사 서미진 (032-560-7063)

한중일, 동북아시아 환경연구 협력 강화 다짐

- 제19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회의 개최 -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1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 (인천 서구 소재) 원내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제19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 참석한다.
-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후, 대기, 물, 보건 등 여러 환경 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 올해 회의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리 하이성(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 환경연구소 원장 등 3국 환경과학원 관계자 약 40여 명이 참석한다.
- 11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 국제 연찬회 (워크숍)’에서는 3국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기후·대기 분야의 ‘신기술 기반 대기 관측과 배출원 기여도’를 주제로 각국의 연구성과가 소개된다.
- 대기오염물질의 분광학 관측 시스템의 개발, 온라인 기반 저비용 센서 개발 등 대기 분야의 연구 결과와 함께,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고밀도 관측망 구축, 이산화탄소 관측을 활용한 배출 기여도 산정 등 기후 분야의 연구성과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오후에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는 물환경, 대기, 환경보건, 기후변화 등 4대 중점협력 연구 분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국의 비교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4대 중점협력 연구 중 물환경 분야는 우리나라 주도로 3국의 수량, 수질, 수생태 협력 연구 결과가 소개될 예정이며, 대기 분야는 중국이, 환경보건 및 기후변화 분야는 일본이 주도한다.
- 특히, 국제적 환경 현안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관측,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적응 등 3가지 주제로 3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중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온 3국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미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 모범사례로서, 동북아시아에서 나아가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제19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 일정표.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제19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 일정표

시 간	내 용
국제 워크숍 (좌장: CRAES, 후 징난 과장)	
10:00-10:15	기조연설(CRAES, 원장)
10:15-10:25	이동형 온라인 기반에 탑재된 저비용의 휴대용 센서의 개발, 개선 및 응용(CRAES, 양 시아오양 교수)
10:25-10:35	동위 원소 및 추적자 측정에 기반한 도시 대기의 CO ₂ 와 CH ₄ 배출원 기여도(NIES, 테라오 유키오 연구관)
10:35-10:45	분광학 관측 시스템의 개발(NIER, 김 기홍 연구사)
10:45-11:00	휴식
11:00-11:10	대기 입자의 미시적 특성화 및 배출원 기여도에 대한 지능형 주사 전자 현미경의 적용(CRAES, 리 웬준 교수)
11:10-11:20	지상 기반의 CO ₂ 관측을 활용한 일본 도쿄 CO ₂ 배출량 산정(NIES, 오야마 히로후미 연구관)
11:20-11:30	한국의 온실가스 관측을 위한 고밀도 관측망(NIER, 김 인선 연구사)
11:30-12:00	논의 및 결론 정리
12:00-14:30	점심 및 휴식
본회의	
개회식 (좌장: CRAES, 원장)	
14:30-14:40	개회사(CRAES, 원장)
14:40-14:50	기조연설(NIES, 원장)
14:50-15:00	기조연설(NIER, 원장)
분과1 : TPM 18 이후 각국 연구현황 (좌장: NIES, 원장)	
15:00-15:10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진행 현황(CRAES, 덩 안 과장)
15:10-15:20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연구진행 현황(NIES, 모리구치 유이치 부원장)
15:20-15:30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진행 현황(NIER, 서 미진 연구사)
분과2 : 3국의 기후변화 비교연구 (좌장: NIER, 원장)	
15:30-15:40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진보(CRAES, 후 지아펑 교수)
15:40-15:50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달성을 위한 저감방안(NIES, 마쓰이 토시히코 과장)
15:50-16:00	과학기반의 적응: 기후변화 영향, 위험성, 취약성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과 연구 방향(NIER, 오 윤영 연구사)
16:00-16:10	휴식
분과3 : 중점협력 연구 (좌장: NIES, 원장)	
16:10-16:18	대기질 분야(CRAES, 후 징난 과장)
16:18-16:26	수질 분야(NIER, 박 배경 연구관)
16:26-16:34	환경보건 분야(NIES, 나카야마 쇼지 부팀장)
16:34-16:42	기후변화 분야(NIES, 마쓰이 토시히코 과장)
분과4 : 3국 원장님 논의 (좌장: CRAES, 원장)	
16:42-17:20	3국의 미래 협력방안 논의
분과5 : 폐회식	
17:20-17:25	마무리 말씀(NIES, 원장)
17:25-17:30	마무리 말씀(NIER, 원장)
17:30-17:35	폐회사(CRAES, 원장)
17:35-17:40	공동합의문 서명식 및 사진촬영

-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Tripartite Presidents Meeting, TPM)
 -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환경연구기관이 모여 환경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임.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참여하며 2004년 중국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일본이 처음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2021년 한국이 화상회의로 개최하였고, 이번 19차 회의 또한 중국이 동일하게 화상으로 개최함.
- 중국 환경과학연구원(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s, CRAES)
 - 중국 환경보호부 산하 중국 최대의 환경정책 및 환경공정개발 연구기관으로 대기, 수질, 생태환경 등의 환경 관련 연구를 수행함.
-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NIES)
 - 일본 환경성 국립공해연구소로 출범하여 현재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최대의 환경연구기관으로 환경보건, 대기환경, 물환경, 생태계 연구 등의 환경 관련 연구를 수행함.